

불황기 역발상 '스페셜에디션'은 날개

기사입력 2008-11-27 12:20 윤종성 jsyoon@asiaeconomy.co.kr

한정상품... 소장가치등 부자들의 지갑 열어

밀레 주방가전 1억호가에도 꾸준한 판매고



포르쉐가 디자인한 밀레의 스페셜에디션 오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지만, 고가의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등 이른바 한정상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가전분야에도 나타나 예년과 달리 '스페셜 에디션' 가전의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데다 소장가치까지 있어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톡톡히' 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룩스가 800대 한정판으로 내놓은 울트라 사일런서 그린 청소기는 4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출시 후 한달 보름만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350여대가 팔렸다.

일렉트로룩스 관계자는 "아직 국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익숙치 않은 데다, 경기 침체라는 악재도 있지만 올해 안에 800대 물량은 전부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렉트로룩스는 무선 진공청소기 '에르고 라피도(Ergorapido)' 스페셜 에디션 2종도 한정판매하고 있다.

R|02밀레의 주방용 가전 스페셜 에디션 제품인 'P7340'은 세트당 1억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밀레 관계자는 "국내에는 올초부터 들여와 포견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기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면서 "몽고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50세트 이상 팔려 나갔다"고 말했다

주방용 가전·가구 세트인 'P7340'은 밀레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쉐 디자인 그

룹(Porsche Design Group), 고급주방가구업체인 포겐폴(POGGENPOHL) 등이 함께 제작했으며, 전기오븐·세라믹호브·커피메이커 등으로 세트를 구성했다.

한편, '바비리스 파리'는 헤어셋팅기인 '원샷 디지털셋팅'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오프라인 한정판 세트'를 내놨다. 한정판 세트는 신제품 '원샷 디지털셋팅'과 '블루마린 패션 시계'로 구성됐다. 이밖에 쿠쿠홈시스도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최고급 프리미엄 밥솥을 3000대만 한정판매할 계획이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